

극적 드라마 만든 북미정상 '톱다운 케미'

리얼리티TV쇼 '방불'... 정상간 직접소통 회동 성사 트럼프 "오늘 걸음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 3차 북미정상회담 '청신호'... 실무협상 재개 발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온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번개 상봉'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이벤트'로 까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인 29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에서 갑작 제안을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답하면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마주 서서 '역사적 악수'를 하는 파격 이벤트가 현실화됐다.

의전과 보안 등의 현실적 벽을 허물며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극적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가능했던 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

원장이라는 두 정상의 '캐릭터'와 핵화 대화가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번개 상봉'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이벤트'로 까지 이어졌다.

두 정상의 파격은 '하노이 노딜' 이후 팍 막혀 있던 북미 협상의 새로운 문을 여는 중대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즉흥적이고 예측불허의 승부사 인 두 정상의 '톱다운 케미'가 없었다면 '리얼리티 TV쇼'를 방불케 하는 파격과 반전의 순간들 자체가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저희 양자(자신과 김 위원장) 간에는 어떤 좋은 케미스트리(궁합)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판문점 상봉이) 성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고비마다 막힌 부분을 뚫으며 돌파구를 마련한 건 북미 정상의 '톱다운 외교'였다.

지난해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벼랑 끝에서 이를 다시 살린 것도 미국 땅을 밟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편에 들려온 김 위원장의 친서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2차 방미길에 오른 김 부위원장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이는 2월 말 2차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북미 간 살얼음판 속에서도 두 정상이 이어온 신뢰의 끈이 가시적 모멘텀을 마련한 것은 '싱가포르 1주년'을 앞두고 이달 들어 양측간에 주고받은 친서 외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만 73번째 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를 겸한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답신으로 화답했다.

거래의 달인을 자처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한국을 향하는 당일인 29일 김 위원장에게 'DMZ 번개 회동'을 전격 제안하며 또 한 번 '상상력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에도 그 발신 통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찾는 트윗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전격 화답하면서 북미 정상의 판문점 상봉이 현실화됐다.

북미 정상이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게 된 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초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가는 길을 닦으면서 이를 위한 실무협상 재개의 동력을 되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걸음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느낌이 좋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지

1 로널드 레이건 (제 40대) 1983년 11월 14일 / 콜리어 초소

2 빌 클린턴 (제 42대) 1993년 7월 11일 / 오울렛 초소

3 조지 W 부시 (제 43대) 2002년 2월 20일 / 오울렛 초소

4 버락 오바마 (제 44대) 2012년 3월 25일 / 오울렛 초소

5 도널드 트럼프 (제 45대) 2019년 6월 30일 / 오울렛 초소와 판문점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만나 남북미 회동

북한 판문점 오울렛 초소(MDL에서 약 25m 거리)

남한 판문점 콜리어 초소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MDL), 비무장지대 DMZ, 평양, 개성, 서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인사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군사분계선 넘은 첫 美대통령 됐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서 북미정상 '역사적 악수'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정전협정 66년 만에 회동에 나선 가운데 세 정상의 만남의 과정도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남한 땅을 밟았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이 예정된 시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측 자유의 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

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향해 동시에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을 재연하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다.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먼저 악수를 나누고 짧은 인사말을 주고 받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

지역으로 발을 내디뎠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같은 모습을 연출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위원장과 함께 북측 지역으로 성큼 성큼 걸여 걸음 걸이간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멈춰선 뒤 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촬영을 했다.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으로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풀이된다.

북측지역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두 정상은 사진촬영을 한 뒤 이번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지역으로 넘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는 적이 있다. 남측지역에 선 두 정상은 카메라를 향해 짧게 소회를 밝혔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렇게 두 정상의 짧은 만남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반전이 있었다. 두 정상은 남측지역에서 두 정상을 지켜보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갔고,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최와대=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문재인·트럼프 찾은 오울렛초소... MDL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초소

트럼프 빨간 넥타이·양복 전직 미 대통령들과 대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찾은 비무장지대(DMZ) 내 오울렛초소(오울렛OP)는 최전방 초소로 불리는 곳이다.

유엔사령부가 경비를 맡은 이 초소는 동·서해안에 걸쳐있는 모든 초소 중에서 군사분계선(MDL)과 가장 가깝다. MDL에서 불과 25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곳에서는 북한 야산을 맨눈으로 볼 수 있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개성공단까지도 관측할 수 있어 매우 전략적인 장소로 꼽힌다.

서로 경쟁을 하듯 높은 곳에서 마주 보며 펼쳐지는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우리측 대성동에 걸린 태극기도 조망할 수 있다.

오울렛이라는 명칭은 6·25전쟁 영웅 고(故) 조셉 오울렛 일병의 이름에서 나왔다. 오울렛 일병은 6·25전

쟁 개전 초기인 1950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인 영산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사해 미 대통령이 의회 명의로 수여하는 '명예대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던 인물이다.

한국을 찾았던 역대 미국 지도자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곳을 찾곤 했다.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2012년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그리고 2013년 12월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 등이 이곳을 방문했다. 2012년 3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할 당시 방탄유리가 설치되는 등 각종 경호시설도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DMZ를 찾았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군 통수권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대부분 군용점퍼를 입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빨간 넥타이에 양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제주금연지원센터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내가 과연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여성, 대학생, 위기청소년,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여성 만19세 이상의 성인 흡연자(임산부 포함)

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만9~24세 청소년 흡연자

대학생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중 흡연자(대학원생 포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흡연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소규모사업장(300인 미만)에 근무하는 흡연근로자

이용안내 평일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장소 제주도 내 대상자가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합니다.

신청 : 방문, 전화, 이메일, 문자, SNS

지원 상담사와의 1:1 맞춤형 상담과 금연보조제 제공, 등록 후 6개월간 사후관리

문의 064-758-9030, 010-8814-9030

4박5일 무료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가자 모집

대상

-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2회 이상의 금연 실패 경험자
- 흡연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 흡연 지속자

날짜

- 월 1회이상, 수요일~일요일(요일 고정)
- 2019년 6월 26일~30일 / 7월 10일~14일 / 7월 24일~28일 / 7월 31일~8월 4일 / 8월 21일~25일 / 8월 28일~9월 1일
- *상기일정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시모집입니다.

캠프특전

- 흡연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폐CT 포함)
- 금연약물요법(니코틴패치, 검, 경구용 약물 등) 제공
- 생활안락, 세면도구 등 개인용품 제공
- 전문적 금연치료와 유지를 위한 개별심리상담과 집단심리상담 제공
- 금연 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제공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주도 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5층 제주금연지원센터
- 전화: 064-758-9030 / 010-3068-9030
- *회기당 선착순 10명 제한입니다.

일 정 표 (예)					
요일/시간	1일차(수)	2일차(목)	3일차(금)	4일차(토)	5일차(일)
08:00-08:30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조식/바이탈 체크/	조식/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바이탈 체크
08:30-09:30		전문의 상담 및 약 처방			
09:30-10:00				그룹동기 강화상담Ⅳ	사후관리 안내 및 개별 내소 예약 상담, 보조제 처방
10:00-10:30		담배가 주는 많은 것들			전문의상담 (검진결과상담)
10:30-11:00					수료식
11:00-11:30		금연에도 약이 있나?			
11:30-12:00					
12:00-14:00			중식 및 휴식	요가명상/세로토닌 워킹/힐링테라피	중식 및 휴식
14:00-14:30		건강검진 & 심리평가			금연캠프 노하우 공유 (캠프 수료자)
14:30-15:00		나의 체력 알아보기			
15:00-15:30	임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휴식		휴식	
15:30-16:00					
16:00-16:30	폐CT촬영 (한국병원)	맛있는 금연 생활		금연, 일상에서 관리하기	
16:30-17:30	금연을 한다는 것	휴식	스트레스관리	휴식	
17:30-18:30		석식 및 휴식	석식 및 휴식	석식 및 휴식	
18:30-20:00	그룹동기 강화상담Ⅰ	그룹동기 강화상담Ⅱ	그룹동기 강화상담Ⅲ	나의 새로운 삶 응원하기	
20:00~		개인 휴식 및 취침			

*프로그램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